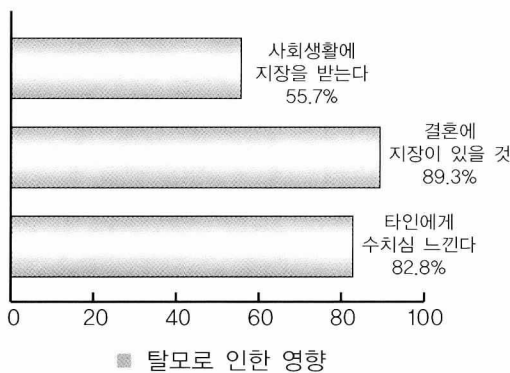


## 탈모증 환자 정서적 장애 크다

사람의 외모를 나타내는 요소 중 하나인 모발은 그 사람의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개성과 자신감이 창출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머리 남성들은 대머리가 아닌 남성들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탈모가 이들 남성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는 머리숱이 적은 대머리 남성이 호감을 덜 주며, 10년은 더 늙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발은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보면 탈모증 환자들은 탈모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상(Body Image)에 부정적이거나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탈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고민을 경희대병원에서 탈모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경희대병원 피부과학교실 및 정신과학교실의 연구팀은 2000년 2월부터 남성형탈모증 치료를 위해 피부과에 내원한 남자환자 192명을 대상으로 피부과 의사가 설문지의 각 문항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고 내용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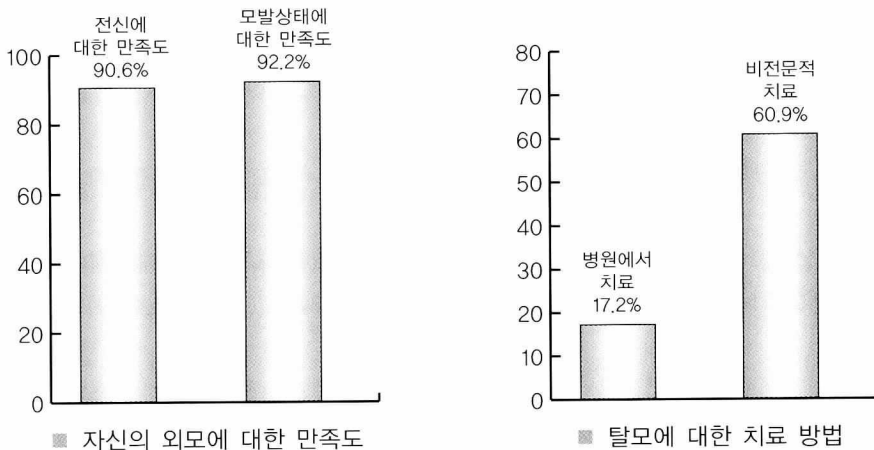
환자의 연령층은 30세 이하가 79.7%였으며 평균 연령은 27세였다. 탈모의 시작은 90.6%에서 30세 이전에 발견하였으며, 평균 시작연령은 24세였다. 결혼여부는 미혼자가 168명(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Norwood 분류에 따른 환자의 탈모형태는 type IIIa, type III 및 type IIIvertex, female pattern 등이 76.1%, 정상인 경우가 16.1%로 대부분이 경증의 탈모증 혹은 정상인 경우였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전신상태에 대해 90.6%의 환자가 '보통' 또는 '만족한다'는 답변을 한 반면, 모발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92.2%의 환자가 '불만'을 나타내었다. 외출시 탈모를

감추기 위하여 60.5%의 환자들이 '신경을 쓴다'고 하였으며, 34.9%의 환자들이 '모자나 가발을 사용한다'고 했다. 놀림받은 경험은 69.8%, 나이 많은 사람으로 오인받은 경험은 45.3%의 환자에서 있었다.

탈모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변한 경우가 55.7%로 반수 이상이었으며, 미혼환자의 대부분(89.3%)이 '결혼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탈모에 대하여 관심을 보일 때 82.8%의 환자들이 '수치심을 느낀다'고 답해 정서적인 장애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79.7%의 환자가 치료에 대한 정보를 찾는 노력을 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약 17.2%만이 병원에서 치료한 경험이 있었고, 60.9%의 환자는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모발관리센타 등의 비전문적인 방법으로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적절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적었다.



남성형 탈모증의 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환자는 탈모증이 심하지 않은 20대의 젊은 환자들로서 이들은 모발상태에 대한 불만족과 수치심으로 인해 사회생활과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환자들의 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경희대병원)